李회장 개입 정황 증거 확보 주력

의혹 일부 시인…"책임 지겠다" 진술
삼성특검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 작업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6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한 이건희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각종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소환 조사에서 수사대상 의혹들 중 일부를 시인하고 그룹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주변에서는 이 회장이 그룹 내에서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을 통해 자금이 운용된 점을 알고 있었지만 개인 재산이었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정도 그룹 전략기획실을 통해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지만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진은 이 회장의 특검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에버랜드 사건 등에 그룹 최고위층이 관여했다는 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버랜드 사건과 같은 배임 사건은 수뇌부의 책임을 입증할만한 직접 증거가 나오기가 어렵고 관련자 진술도 다각도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만큼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사진은 이미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과정 당시 그룹 내 통상적인 의사결정 패턴이나 보고 방식 등을 찾아내 '이 정도면 그룹 최고위층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볼만한 내용들을 추려내고 있다. 또, 부족할 경우 그룹 전략기획실 관계자 등에게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비자금 조성 의혹·불법 경영권 승계·정관계 불법 로비 등 3대 의혹 별로 사실관계를 확정해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사안별로 적용 가능한 법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차명으로 드러난 삼성생명 지분 16.2%의 명의자 중 한 명인 이해규 삼성중공업 전 부회장을 불러 이 회장 소유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오후 4시께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면서 "삼성이 범죄집단처럼 부각됐는데 옳지 못하다"며 "차명주식 거래가 사실이라고 해도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고 삼성이 풀지 못한 문제다. 능력이 없어서 못 푼 게 아닐 것이고 이제 법이나 사회 분위기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티베트인들이 5일 인도 다름살라에서 반중(反中) 촛불 철야시위를 벌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추굴라캉 사원에 모여 피살된 티베트 시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연합뉴스

남북협력기금법 처벌 규정 삽입 검토

기금 전용 벌금형…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는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의 종자돈인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이하 기금법)에 처벌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기금을 유용 또는 전용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개인 및 해당 단체를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문을 넣는 방향으로 기금법과 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금법은 기금을 정해진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금을 유용한 단체를 처벌하거나 향후 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다. 통일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달 26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식통은 "지금도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한 개인과 단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업무상 횡령 등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며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면서 "그러나 민간 단체의 모금액에 연동해 지원하는 '매칭펀드' 등 남북협력기금만의 특성과 기금 투명성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 등을 감안, 기금법상에도 처벌의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키히토 日王 방한 가능성 높다

이명박 대통령 20일 방일때 초청할 듯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간 우호·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능성은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취임식을 전후해 나온 이 대통령과 아키히토 일왕의 발언을 배경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2월1일 서울에서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아키히토 일왕도 취임식 직전인 2월23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취임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당시 "일왕의 축하메시지는 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는 없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오는 20일 일본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일왕의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일왕의 방한이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있는 한국내 정서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일왕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미시간주 재경선 불발 힐러리 역전 전략 차질

美대선 민주후보 경선

장기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미시간주의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재실시가 무산됨에 따라 '언더독'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역전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의 미시간 당집행위원회는 5일 조기 경선실시로 선거결과를 인정받지 못했던 미시간 경선의 재실시 문제를 논의한 끝에 투표를 다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6일(현지 시각) 전했다.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게 뒤져있는 힐러리 진영은 그간 미시간 경선 부활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힐러리는 '오바마 대세론'을 뒤집고 역전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힐러리 진영은 미시간 당 집행위의 결정이 나오자 "지난 1월 미시간에서 이뤄진 60만 표가 사표(死票)가 돼서는 안된다. 미시간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며 불만에 가득찬 성명을 내놨다.

힐러리 측은 또 미시간 대의원들이 대통령 후보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석해야만 한다면서 10만 명이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해 이미 관련청원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반면 오바마 진영은 미시간 대의원들의 절반씩을 나눠갖자는 절충안을 힐러리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비록 무효가 된 경선이지만 힐러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승리했던 미시간의 대의원을 균분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힐러리로서는 전당대회 이전까지 미시간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의원 수 확보에서 오바마에게 열세이기 때문에 역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된다.

미시간은 플로리다와 함께 당의 규칙을 어기고 프라이머리 일정을 앞당겼다는 이유로 당 전국위원회로부터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 대의원의 참가 및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연합뉴스

"中 경찰 발포로 8명 사망"

티베트 망명 정부

티베트 망명정부는 지난 3일 중국 쓰촨(四川)성 가르제(甘孜) 티베트 자치주에서 발생한 시위 도중 8명이 사살됐다고 주장했다.

망명정부는 6일, 지난 3일 가르제의 통크코르 사원 승려들이 주도한 평화적 시위에서 중국 경찰이 발포해 모두 8명이 사망했으며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면서 사망자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망명정부 측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8명 가운데 4명이 여성이다.

한편, 당시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공안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포했다고 보도했고, 티베트 인권 단체들은 일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연합뉴스

달라이 라마 "무력감 느낀다"

티베트인들에 '비폭력 주의' 고수 당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의 시위로 인해 희생자가 속출하는 데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면서도 "비폭력주의를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6일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례없는 관심과 성원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잘 이해해야 한다"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티베트인에게 "지극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티베트인의 시위가 "중국 당국의 '선전'에 대응한 것일 뿐 아니라 티베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일깨우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국 정부가 더 강력한 힘을 사용하고 티베트인에 대한 억압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달라이 라마는 그러나 티베트인의 투쟁 대상은 중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권부라면서 "이번 위기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모든 티베트인 및 중국인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티베트 사태의 해결책이 티베트에 국방, 외교를 제외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중도적 접근법'에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티베트의 미래에 대해 결정할 권리는 티베트인 자신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